

평생 모은 재산 13억 땅 도서관 부지로

충북 제천 시립도서관 부지 기증한 김학임할머니

김제의 벼골제, 밀양의 수산제와 함께 삼한 시대의 3대 수리시설 중의 하나인 의림지는 충북 제천의 명소로 꼽힌다. 거개의 지방 소도시들이 그러하듯 이따금 찾아드는 외지인들이 있을 뿐 제천도 특별히 눈에 띄는 변화나 발전은 없는 인구 3만의 조용한 도시다. 교육문제로 빠져나가는 유출인구가 적지 않다는 점도 여느 지역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최근 세명대학교를 신설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제천시는 얼마전 시가 13억원에 이르는 땅을 도서관 부지로 기증받아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올해 7순을 맞은 김학임씨가 바로 화제의 주인공으로, 시민회관과 공원을 비롯해서 각종 상가와 위락시설이 밀집해 있는 제천시 중앙로 2가 일대의 자신의 땅 104평을 시립도서관 부지로 내놓은 것. 현재 제천에는 유일하게 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그나마 규모가 작고 변두리에 위치해 있어 이용에 어려움이 많아 특별히 도서관 부지로 지목했다는 김학임씨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건립에 나서 전시설, 행사장까지 겸비한 1천석 규모의 도서관 건립 계획이 내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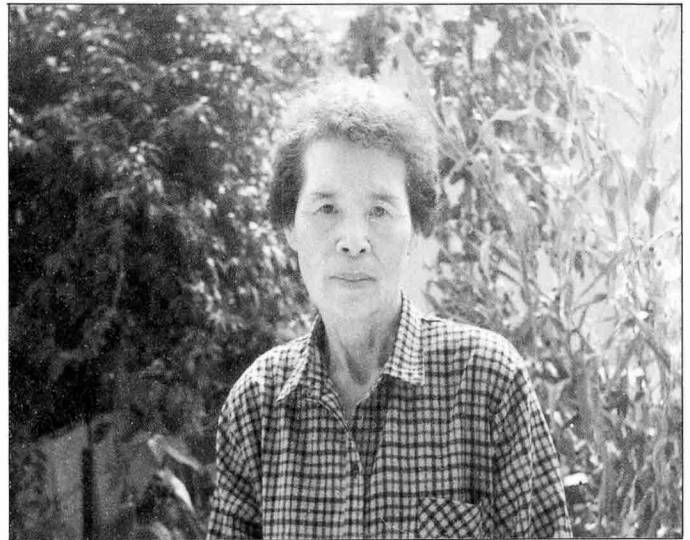
경북 금융생인 그는 48년 당시 행정 공무원이었던 권오성씨(69)와 결혼, 박봉에 대가족을 부양하며 삼바느질, 돼지사육 등을 하며 가계를 도야야 했던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남편의 부임지를 따라 옮겨다니면서 "리아카도 못들어갈 골목들 투성이인" 동네를 전전했던 그는 삼바느질만도 근 20여년간을 했다. "모시적

삼 만들기가 가장 어려웠고 한겨울엔 차가운 재봉틀 때문에 햇빛에 발을 쬐가며 바느질을 하곤 했다"고 회상하는 김학임씨는 "지금 생각하면 그 세월이 무슨 세월인지 한뼉힐 시간도 없었다"고 한다.

유난히 고지식한 남편의 월급은 지난 78년 경찰관직을 정년퇴임할 때까지 10만원을 넘지 않았었고 초기에는 월급대신 쌀배급을 받아오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 남편을 따라 처음 제천으로 옮겨 온 때가 64년이다. 그 뒤 청주 등으로 전근을 다니기도 했지만 69년 다시 돌아와 지금까지 제천을 떠나본 적이 없다고 한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81년에 마련한 것으로 그가 기증한 도서관 부지와 바로 면해있다.

한때 가내 양말공장을 경영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70년부터 틈틈이 저축한 돈으로 집 근처의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다는 그는 "돈은 재주를 부려도 땅은 재주를 못부린다"는 옛 어른의 말씀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이 땅이 제천시의 요지가 되면서 평당 1천3백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금싸라기 땅으로 변한 것은 김학임씨의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만 "집근처에 아카시아나무숲이 있는 보기 좋은 곳"을 선택했던 것이라고.

땅값이 치솟자 여러 곳에서 땅을 팔라는 요구가 많아지고 끈질긴 강요를 피해 잠시 집을 떠나 있었던 적도 있다는 김학임씨는 남편과 오랜 숙고 끝에 지난 9월 28일 제천 시청으로 찾아가 기증의 뜻을 전했다. 현재 남편의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그는 결혼해 분가한 외아들을 두고 있으나, 남편과 마찬가지로 아들도



김학임할머니.

"돈욕심이 없어" 가족간의 합의가 쉽게 이뤄졌다고 밝힌다.

지난 시절에 비해 "정말 편하게 살게 됐다"는 그는 평소 키워온 사회사업의 꿈을 실현하고 "이제는 조용히 말년을 준비하고" 있다.

독실한 불교신자로 지금도 집안일을 모두 혼자 한다는 그는 재래식부엌을 얼마전에야 개조할 정도로 생활력이 강하다. 7순의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그는 "어렵게 살면서도 욕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그 비결인 것 같다"고 한다.

현재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는데, 도서관부지 기증 후에는 시장에도 못나갈만큼 유명한 사가 됐다며 찾아오는 사람도 많아 오히려 생활이 불편할 지경이라며 웃는다.

"해방과 6. 25를 겪으면서 그 어려웠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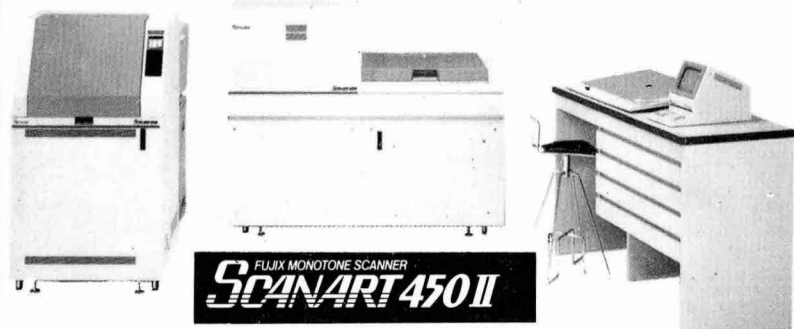
를 살아온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것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잘 곳과 먹을 것만 있으면 족했던 나같은 사람들은 자신보다는 가족이 우선이었고 그런 삶을 희생이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린 사람들'이 더 많이 배우고 올바른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굳이 도서관부지로 기증한 이유가 있다면, 교육보다 더 좋은 재산은 없다는 생각에서입니다."

그 자신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던 세대로, 학교는 많지만 도서관은 없는 이즈음의 교육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포랑포랑한 목소리다.

—정소연 기자

남산 프로세스 NAMSAN DESIGN PROCESS

New 단색 스캐너 450 II 출현!



FUJITSU MONOTONE SCANNER SCANART 450 II

- 사상 최대 사이즈
- 사상 최고 속도
- 사상 최고 품질
- 선화제판의 고품질



바쁘신분 연락주세요.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49-11태광 B/D 301호
TEL: 269-8742~3 FAX: 278-8729